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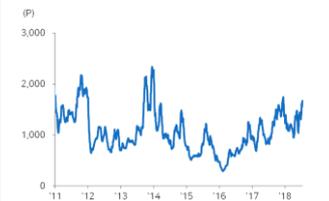
국내 주요 조선/기계 업체 Valuation

업체명	시가총액 (십억원)	외국인지분율 (%)	증가 (원)	1D (%)	1M (%)	3M (%)	YTD (%)	PER(x)		PBR(x)		ROE (%)	
								18E	19E	18E	19E	18E	19E
현대중공업	6,598.4	15.6	95,400	0.2	-9.6	-20.8	-0.6	66.5	31.9	0.5	0.5	0.7	1.4
현대중공업주	5,472.3	21.1	336,000	-1.6	-4.8	-19.4	-11.8	4.5	3.8	0.6	0.5	14.1	14.7
현대일렉트릭	591.9	3.9	58,000	-1.0	-23.3	-31.6	-49.1	5.5	4.8	0.5	0.4	9.3	9.7
현대건설기계	1,125.9	9.4	114,000	-5.4	-16.5	-39.2	-32.5	7.2	5.4	0.8	0.7	11.7	13.9
삼성중공업	3,836.7	16.6	6,090	-2.1	-12.1	-18.8	-5.9	38.4	19.1	0.4	0.4	1.0	1.9
대우조선해양	2,578.3	5.1	24,050	0.0	2.1	-10.6	73.0	6.7	9.7	0.7	0.7	11.6	7.2
현대미포조선	1,616.0	9.6	80,800	0.0	-5.2	-10.0	2.7	17.4	12.6	0.6	0.6	3.6	4.8
한진중공업	295.9	6.4	2,790	-3.1	-9.6	-14.8	-15.7	56.1	14.0	0.4	0.4	0.7	2.8
현대엘리베이터	2,118.3	22.0	78,000	1.8	-25.4	-25.0	43.4	13.8	13.4	1.9	1.7	14.6	13.3
두산발켓	3,007.5	25.5	30,000	-0.7	-2.1	-6.4	-16.2	11.0	10.4	0.8	0.8	7.4	7.6
현대로템	2,035.8	7.0	23,950	-0.4	-23.0	31.6	27.7	30.9	21.1	1.4	1.3	4.5	6.3
하이록코리아	319.2	48.3	23,450	0.2	-8.8	-3.1	4.2	10.6	9.7	0.9	0.8	8.8	9.0
성광케미	297.4	16.4	10,400	-2.3	-7.6	-14.0	4.2	919.3	37.3	0.7	0.7	0.1	1.8
태광	278.3	12.9	10,500	-0.5	-11.8	-20.5	-12.9	62.7	30.6	0.7	0.6	1.0	2.1
두산중공업	1,622.5	13.9	13,850	-0.4	-13.2	-15.5	-9.8	17.0	8.8	0.5	0.5	3.0	5.0
두산인프라코어	1,906.7	17.2	9,160	-0.7	-2.6	-1.6	5.4	6.2	5.8	1.0	0.9	16.8	15.5
두산엔진	115.6	3.9	3,510	-6.1	-12.9	-14.5	36.6	-6.9	-9.3	0.2	0.2	-2.7	-3.6
한국항공우주산업	3,138.7	13.9	32,200	-6.5	-27.6	-29.7	-32.1	23.3	18.6	2.6	2.3	10.9	13.1
한화테크윈	1,150.1	11.1	22,100	-4.3	-22.0	-15.3	-37.8	27.2	15.0	0.5	0.5	2.1	3.4
LIG넥스원	744.7	9.1	33,850	-3.7	-31.3	-21.7	-43.4	16.0	10.6	1.2	1.1	7.7	10.9
태웅	288.1	4.6	14,400	-1.4	-13.8	-22.0	-25.6	N/A	N/A	N/A	N/A	N/A	N/A
동성하이텍	158.9	3.2	5,890	-3.9	-16.1	-14.9	16.6	N/A	N/A	N/A	N/A	N/A	N/A
한국카본	247.1	12.1	5,620	-2.1	-7.9	-5.1	4.9	30.6	15.9	0.8	0.7	2.4	4.8

주: 커버리지 업체 PER/PBR/ROE는 메리츠증권권 추정치, 그 외 업체는 Bloomberg 컨센서스 수치 /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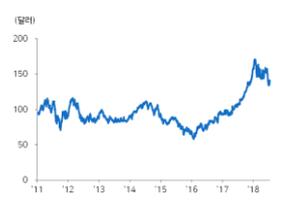
주요 지표 및 차트

Baltic Dry Index(BDI) : **-31** 16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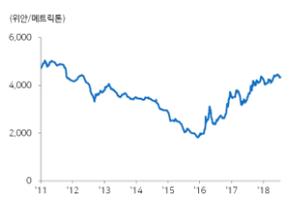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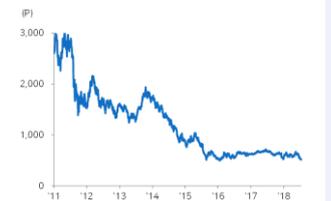
Caterpillar(CommonStock) **-0.84** 139.42



중국 내수 후판 가격 (CDSPPAV Index)



KRX 조선업 지수(KRX Shipbuilding Index)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단체협상 난항' 현대중 노조, 폭염 속 전면파업

현대중공업 노조는 예고대로 19일 오후 2시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해 24일 오후 5시까지 지속할 예정이다. 전체 조합원 1.2만명 중, 약 1천명이 참여했다고 알려짐. 노조는 기본급 인상 등을 사측에 요구했으나, 사측은 기본급 동결과 20% 반납 등을 제시해 협상의 간극을 좁히지 못하는 상황으로 알려짐. (한국일보)

MSM books bulkers but less lucky with tankers

Masters Ships Management (MSM)은 중국에 벌크선 2척 발주는 성공했으나, STX조선해양에 발주한 MR탱커 2+2척은 발주에 실패했다고 알려짐. 발주 실패의 원인은 STX조선해양의 주요 주주인 KDB산업은행의 RG(선수금 환급보증) 발급 거절로 알려짐. (TradeWinds)

First half LNG order haul tops 25 ships

올해 상반기에 FSRU 2기와 LNGBV 2기를 포함한 총 26척의 LNG선이 발주됐다고 집계됨. 2분기에는 총 8척의 LNG선이 발주되며 1분기 대비 발주 규모가 줄었으나, 3분기에는 발주 활동이 다시 활발해지고 있음. 관계자는 연초 LNG선 선가는 1.8억달러였으나 최근 1.85억달러를 상회한다고 분석함. (TradeWinds)

최종구, 대우조선 노조 향한 작심발언...강한 경고 보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파업을 결의한 대우조선해양 노조에 '합의 번복'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펴는 등 강하게 비판함. 여기서 합의는 대우조선 노조가 2015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13.7조원의 공적 자금을 지원 받으면서, 파업 등 쟁의활동을 하지 않고 자구계획안에 동참한다는 내용의 서약을 의미함. (뉴스1)

Samsung start date for Coral

삼성중공업은 모잠비크의 Coral FLNG를 오는 9월부터 건조할 계획으로 알려짐.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Hull에 대한 Steel cutting은 9월에 시작된다고 알려짐. Coral FLNG는 삼성중공업과 TechnipFMC, 일본 JGC 컨소시엄이 수주했고, 약 70억달러 규모의 프로젝트임. (Upstream)

Valles axes tanker deal at STX as KDB pulls order support

Valles Steamship은 선대 현대화를 위해 5만DWT급 MR탱커 2척을 STX조선해양에 LOI를 체결했고 향후 발주할 계획이었으나, STX조선의 주주인 KDB산업은행의 RG 발급 거절로 중단됐다고 알려짐. Valles 측은 MR탱커 건조를 위해 타 조선사와 접촉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음. (TradeWinds)

Wartsila ramping up scrubber capacity

핀란드 Wartsila는 신조선과 기존 선박에서 스크러버 주문이 급증해 capacity를 늘릴 계획으로 알려짐. 회사 관계자에 따르면, 스크러버는 선박마다 필요한 사이클이 모두 달라서 인도 시점도 달라진다고 언급함. 최근 스크러버 발주로 선주들이 장착을 위해 오래 기다려야 할 수도 있는 상황임. (TradeWinds)

특대형 '컨'선 進路 누가 막으랴

올해 2분기 중 글로벌 컨테이너선 선대의 31%가 특대형 컨테이너선(ULC)인 것으로 집계되었다고 알려짐. 2014~18년 중 선사 수는 줄었으나, 평균 선복량은 25% 증가했고, 상위 10대 선사의 TEU 기준 선대 점유율은 15% 증가함. 올해 ULC가 예정대로 인도되면 전체 컨선 선복량은 3% 늘어날 전망이다. (선박뉴스)

동 자료는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2018년 7월 20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유가증권(DR, CB, IPO, 시장조성 등) 발행 관련하여 지난 6개월 간 주가로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2018년 7월 20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조사분석 담당자는 2018년 7월 20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김현)
 동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동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